

역경없이 순탄히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번의 타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. 그러나 끊임없이 불운과 싸워온 사람은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, 불행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, 설령 쓰러지더라도 무릎 꿇은 채로 끝까지 싸워냅니다.